

고소득자 기준을 바꾸면서 부자감세를 가렸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.

<보도내용>

- 2024.10.30. 경향신문은 「중산층 감세 6.8% 느는데 고소득층 감세 9.9% 는다…기준 바꾸면서 ‘부자감세’ 가려져」 기사에서,
- “예정처에 따르면 정부는 2021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(OECD)의 서민·중산층 기준에 따라 중위 소득의 150%(총급여 7200만원) 이하를 중·저소득자 기준으로 삼았으나 현 정부 출범 첫 해인 2022년부터 평균 임금의 200%(총급여 8400만원)로 기준을 바꿨다.”라고 보도하였습니다.

<기획재정부 입장>

- 정부는 2013년도 조세지출예산서부터 수혜자별 조세지출액을 발표해 왔으며 중·저소득자 기준으로 ‘평균임금’을 일관되게 사용해 왔습니다.

구분	서민·중산층 기준
2013~2021년	5인 이상 사업장 상용직 근로자 평균임금 x 150%
2022년~	1인 이상 사업장 전체 근로자 평균임금 x 200%

- 정부가 '22년에 중산층 기준을 변경한 것은 국회의 지적 및 경제협력개발기구(OECD)의 중산층 기준 변경 등을 반영한 것으로, 부자감세를 숨기려고 조작한 것이 아닙니다.
- '21년 상용근로자가 아닌 전체 근로자 임금을 반영해야 한다는 국회의 지적 및 '16년 경제협력개발기구(OECD)의 중산층 기준 변경* 등에 따라, '22년부터 기준을 전체 근로자 평균임금으로, 상한 비율도 200%로 변경하였습니다.

* (종전) 가구 중위소득의 50~150% → (변경, '16년) 가구 중위소득의 75~200%

○ '21년 종전 기준에 따른 서민·중산층 기준은 7,200만원 이었으며, '22년 변경된 기준에 따른 서민·중산층 기준은 8,400만원이 아닌 7,600만원 입니다.

- 종전 기준과 변경된 기준 간 차이는 400만원으로 큰 차이가 없어* 감세 또는 증세를 숨기려고 의도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.

* ('21년) 5인이상 사업장 상용근로자 평균임금(401만원) x 12월 x 150% = 7,200만원
('22년) 전체 근로자 평균임금(318만원) x 12월 x 200% = 7,600만원

담당 부서	세제실 조세분석과	책임자	과 장	윤수현 (044-215-4120)
		담당자	사무관	서은혜 (animez@korea.kr)
담당 부서	세제실 조세특례평가팀	책임자	팀 장	이제봉 (044-215-4190)
		담당자	사무관	송석하 (ssh115405@korea.kr)

